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펠트, 용기,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펠트, 용기,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6. 8.
일본, 펠트병 규격
개정안 발표

2015. 8. 1.
자판기도 등장
"상온" 음료 붐과
세균 증식 위험

2015. 8. 15.
선술점 토리키조쿠(鳥貴族),
식품 첨가물 알코올 제제를
고객에게 제공



핵심이슈
도출

“일본, 펠트(PET) 용기 규격 개정안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페트(PET) 용기 규격 개정안 발표

2016년 6월 일본 후생 노동성은 식품, 첨가물 규격 기준 (1959 년 후생성 고시 제 370 호)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주 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 식품 용기 포장에 대한 개별 규격이 설정되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은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흔히 말하는 페트(PET)병은 이 원료로 만든 병을 말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명성, 내압성, 가스 차단성이 우수해 생수나 음료 등 식품 용기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신규 개정안에 따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는 납,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카드뮴, 저마늄, 그 외 물, 4% 초산, 에탄올, 헵탄 등의 규격에 맞는 용기를 제조해야한다. 개정안 내 검사 항목별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본 개정안에 따르는 유예 기간은 2016년 12월 7일까지이며, 2016년 12월 8일 이후 일본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 용기 포장은 새로운 표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일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 규격 〉

검사항목		기준치	
일반규격	용출 시험	중금속	1 μ g/m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μ g/mL 이하
	재질 시험	납	100 μ g/g 이하
		카드뮴	100 μ g/g 이하
개별규격	용출 시험	저마늄	0.1 μ g/mL 이하
		증발잔류물 물 4% 초산 20% 에탄올 헵탄	30 μ g/mL 이하
			30 μ g/mL 이하
			30 μ g/mL 이하
			30 μ g/mL 이하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국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의 잔류 규격은 염화비닐리덴 6 mg/kg 이하, 용출 규격은 납 1 mg/L 이하, 바륨 1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mg/L 이하, 총 용출량 30 mg/L 이하 등으로 개정된 일본의 규격 안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개별 규격은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함유량이 50% 이상인 용기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본 수출용 식품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용기 규격이 이번 신규 개정안에 적합한 지에 대해 수출 전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